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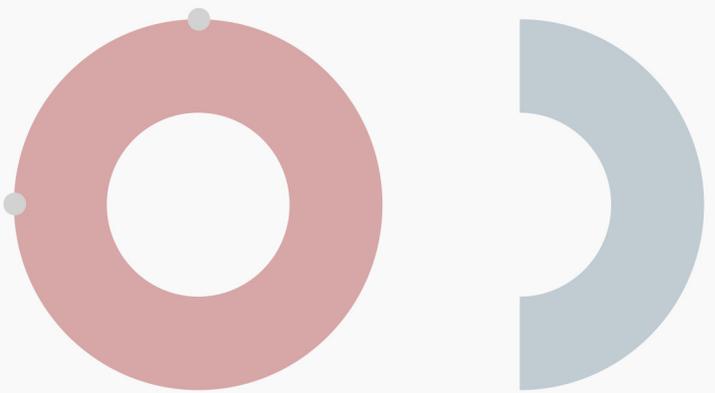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2021 WINTER CONFERENCE

On-Line

세션별 Webinar 진행

2021 동계 ... 학술대회

2022. 02. 24 ^목
am 10:00~pm 5:00



주최



韓國保險學會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목 차

인사말씀	4
2021 동계학술대회 발표목록	5
세션별 논문발표	9
세션 I 보험경영	11
세션 II 연금 및 제도	17
세션 III 보험수요 및 공급	23
세션 IV 보험계리	29
특별세션 I FIS	35
특별세션 II FIS	41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47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는 회원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한국보험학회가 무리 없이 순항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보험학회는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이기는 하지만, 개최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금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총 24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보험경영, 연금 및 법제도, 보험수요 및 공급, 그리고 보험계리 등 다방면에 걸친 주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우리나라 보험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동계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보험학회 회장 **장덕조**



2021 동계학술대회 발표목록

○ 전체진행 : 남상욱 교수(서원대학교,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개회 및 초청특강	
09:50~10:00	등록 / 개회
10:10~11:50	오전세션 (I~II)
13:30~16:40	오후세션 (III~IV) 및 특별세션 (FIS)
16:40~17:00	연구윤리교육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회)
17:00	폐회

오전 세션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 보험경영 사회: 허 연 교수 (중앙대학교) ZOOM: https://cau.zoom.us/j/6941353919?pwd=aXZMS1FMN0phNmRpYUhyR0x3MS9mQT09 회의 ID: 6941353919	
10:10~10:30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생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발표: 양기진(전북대)
10:30~10:50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산업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발표: 전한덕(전주대)
10:50~11:10	보험회사의 ESG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발표: 오승창(목포대 박사과정)
11:10~11:30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모델에 대한 실증연구 발표: 허연(중앙대)·이진영(중앙대 박사과정)
11:30~11:50	종합 정리 및 Q&A
세션 II 연금 및 제도 사회: 마승렬 박사 (손사경영연구소) ZOOM: https://zoom.us/j/9098484354 회의 ID: 9098484354	
10:10~10:30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의향 분석 및 시사점 발표: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전희주(동덕여대)
10:30~10:50	주택연금의 수익비 및 기대수익률 분석 발표: 마승렬(손사경영연구소)
10:50~11:10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아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발표: 전희주(동덕여대)·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11:10~11:30	합리적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유주선(강남대)
11:30~11:50	종합 정리 및 Q&A

세션 III | 보험수요 및 공급

사회: 박소정 교수 (서울대학교)

ZOOM: <https://snu-ac-kr.zoom.us/j/405834198>

회의 ID: 405834198

13:30~13:50	제품의 수직차별화와 기업보험 수요 모델 발표: 김경선(보험연구원)·홍지민(송실대)·석승훈(서울대)
13:50~14:10	금융이해력, 거주지와 개인연금수요의 관계 발표: 박소정(서울대)·손준호(서울대 석사과정)
14:10~14:30	보험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남해정(동국대)
14:30~14:50	3대 질병보험의 언더라이팅이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 이지이(목포대 박사과정)
14:50~15:10	종합 정리 및 Q&A

세션 IV | 보험계리

사회: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ZOOM: <https://us02web.zoom.us/j/85613343525?pwd=ajNsVExvd3lXQ25lVWg1YTd6RTlaQT09>

회의 ID: 856 1334 3525 (암호: 7440)

15:10~15:20	고령화와 공적연금 균형보험요율 발표: 김선애(성균관대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손지훈(조세재정 연구원)
15:20~15:40	Piecewise linear boundary crossing probabilities, Barrier options, and Variable annuities 발표: 이민하(성균관대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하홍준(Saint Joseph's Univ.)
15:40~16:00	IFRS 17과 IFRS 4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 및 보험손익 비교 분석 발표: 김창기(고려대)·김창연(KB손해보험)
16:00~16:20	태풍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구역별 손실예측모형: 기후변화 영향과 기계학습 응용 발표: 이승준(포항공대 석사과정)·정광민(포항공대)·김종훈(포항공대)
16:20~16:40	종합 정리 및 Q&A

특별세션 FIS I |

사회: 이상림 교수 (목포대학교)

ZOOM: <https://yonsei.zoom.us/j/5909344852>

회의 ID: 5909344852

13:30~13:50	데이터 유출 위험의 공간적 상관성 분석 연구: 미국 사례 중심으로 발표: 조재훈·오유정·노동준(포항공대)
13:50~14:10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에 관한 연구: 운동을 중심으로 발표: 김보경·정창연·성미연(동아대)
14:10~14:30	기후변화 리스크와 일상생활에 관계 발표: 양원혁·정택민·이시우(서원대)
14:30~14:50	MZ세대를 위한 보험마케팅 방안 발표: 김석호·서진혁·오성진(동서대)
14:50~15:10	종합 정리 및 Q&A

특별세션 FIS II |

사회: 남상욱 교수 (서원대학교)

ZOOM: <https://yonsei.zoom.us/j/5909344852>

회의 ID: 5909344852

15:10~15:20	ESG 활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오병준·조정현·박건우(전주대)
15:20~15:40	드론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손승명·김성찬·조진석(목포대)
15:40~16:00	비용-편익 관점에서 본 실손 의료보험 유지 행태 분석 발표: 고재현·왕재형·정승환(성균관대)
16:00~16:20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상품 구매의사 결정요인 분석 연구 발표: 송재관·송두섭·채희주(순천향대)
16:20~16:40	종합 정리 및 Q&A

16:40~17:00	연구윤리교육
17:00	폐회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 보험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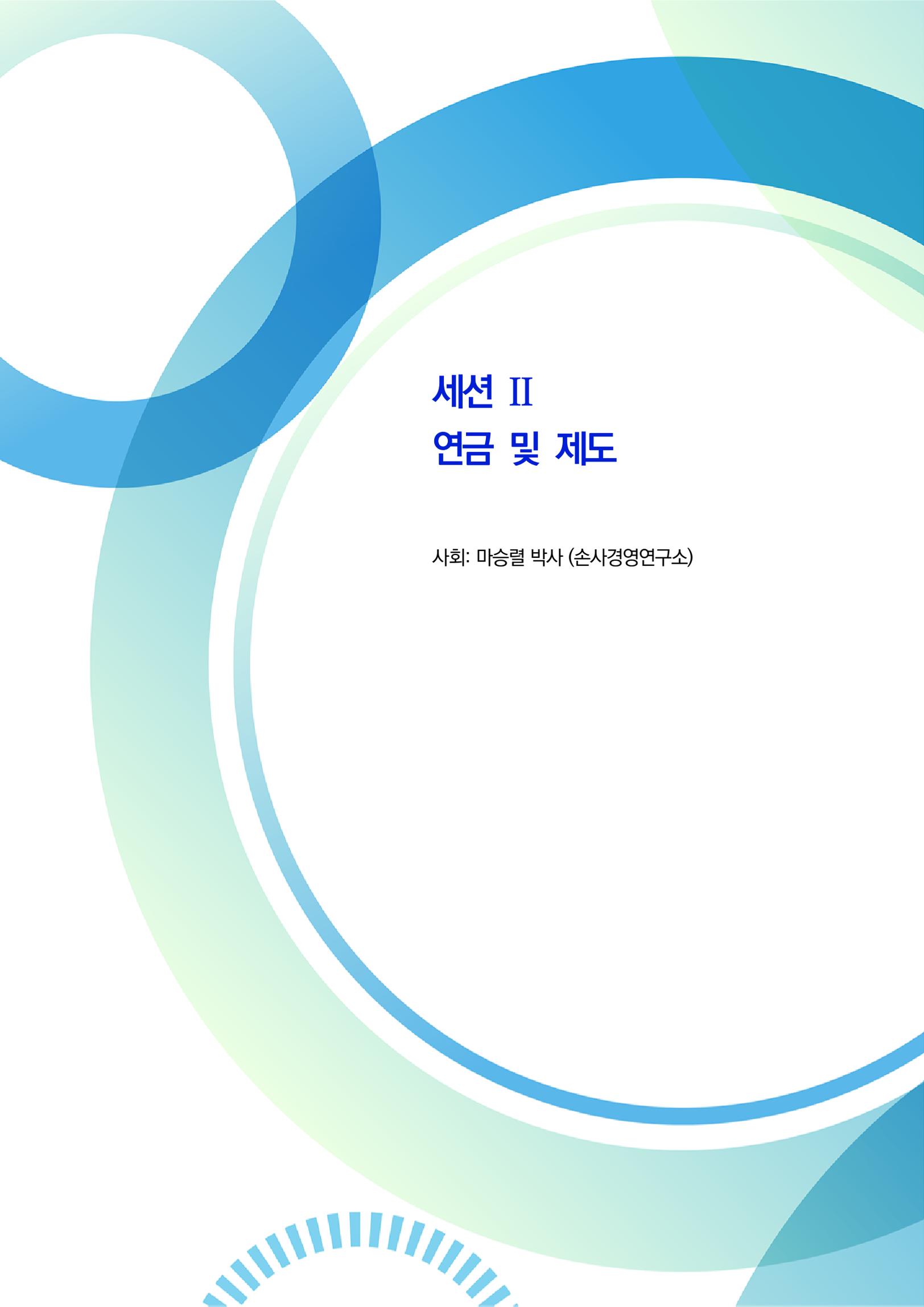
사회: 허 연 교수 (중앙대학교)

발표자	성명	양기진
	소속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한글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생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Invigoration of My-Data o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시행 중인 마이데이터업(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이데이터업자를 통한 마이데이터 활용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차질없이 조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등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함</p> <p>법제 측면에서 생명보험산업에서 마이데이터의 적절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예컨대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는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마이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중요한 바, 마이데이터업을 신용정보에만 허용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일반)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별개법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는 현행 법제가 입법적으로 적정한지,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범위 관련하여 정하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각목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 이동권 대상인 신용정보법시행령 <별표 1>의 범위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함</p>	
Memo	지정정책과제	

발표자	성명	전한덕
	소속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산업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Use of health care data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보험가입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환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명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는 매우 낮을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대규모로 보험회사에 집적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산업, 인슈어테크산업 진출 등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Memo	선도연구과제	

발표자	성명	오승창
	소속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보험학과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보험회사의 ESG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영문	A Study on ESG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Insurance Companies: Focusing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ESG 변수와 타산업의 ESG변수를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ESG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ESG활동과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을 실증한 연구이다.</p> <p>본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자료 246개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첫째 보험회사 특성형태(보험/손해업종, SIZE, 국내/해외, 기업지배구조)을 활용하여 ESG활동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보험회사 특성별로 ESG활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보험회사의 ESG활동이 재무적(RoA, ROE), 비재무적(계약유지율, 민원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p>기업의 ESG 경영환경에서 보험회사는 ESG촉진자, ESG 위험보장자, ESG 경영주체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보험회사와 ESG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하거나 최신 해외연구에 한정되어,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가 ESG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역할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허연
	소속	중앙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모델에 대한 실증연구
	영문	An Empirical Study on a Detection Model for Auto Insurance Fraud using Rental Cars
공동연구	이진영- 중앙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ADB)	
논문초록 (Abstract)	<p>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은데 아직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19-2020년 기간 동안 렌터카 사고로 접수된 210,652건 중 모든 피해자 변수 데이터가 있는 81,728건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적발 모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일반사고로 분류한 80,866건과 보험사기로 적발된 862건 중 보험사기 적발모델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는 각각 60,000건과 600건이었으며, 나머지 자료는 적발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자료로 활용하였다. Viaene et al.(2002)의 연구와 같이 보험사기 적발에 가장 탁월한 예측치를 보이는 로지스틱모델과 머신러닝 기법의 일종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기법을 활용하여 렌터카 사고 중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측해 보았지만 두 방법 모두 예측력이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관찰변수가 제한적이며, 일반사고로 판명된 렌터카 사고에도 실제 보험사기 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14개의 보험사기 징후를 나타내는 변수를 규명하였고,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4가지 특성을 찾아내었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14개의 변수를 기초로 실무에서는 scoring system을 구축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수집하고 축적해야 하는 변수들에 대한 제안 중 우리가 수집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 그리고 상해의 특성과 피해자 치료의 구체적인 특성 요소들이 꾸준히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p>	
Memo	선도연구과제	



세션 II 연금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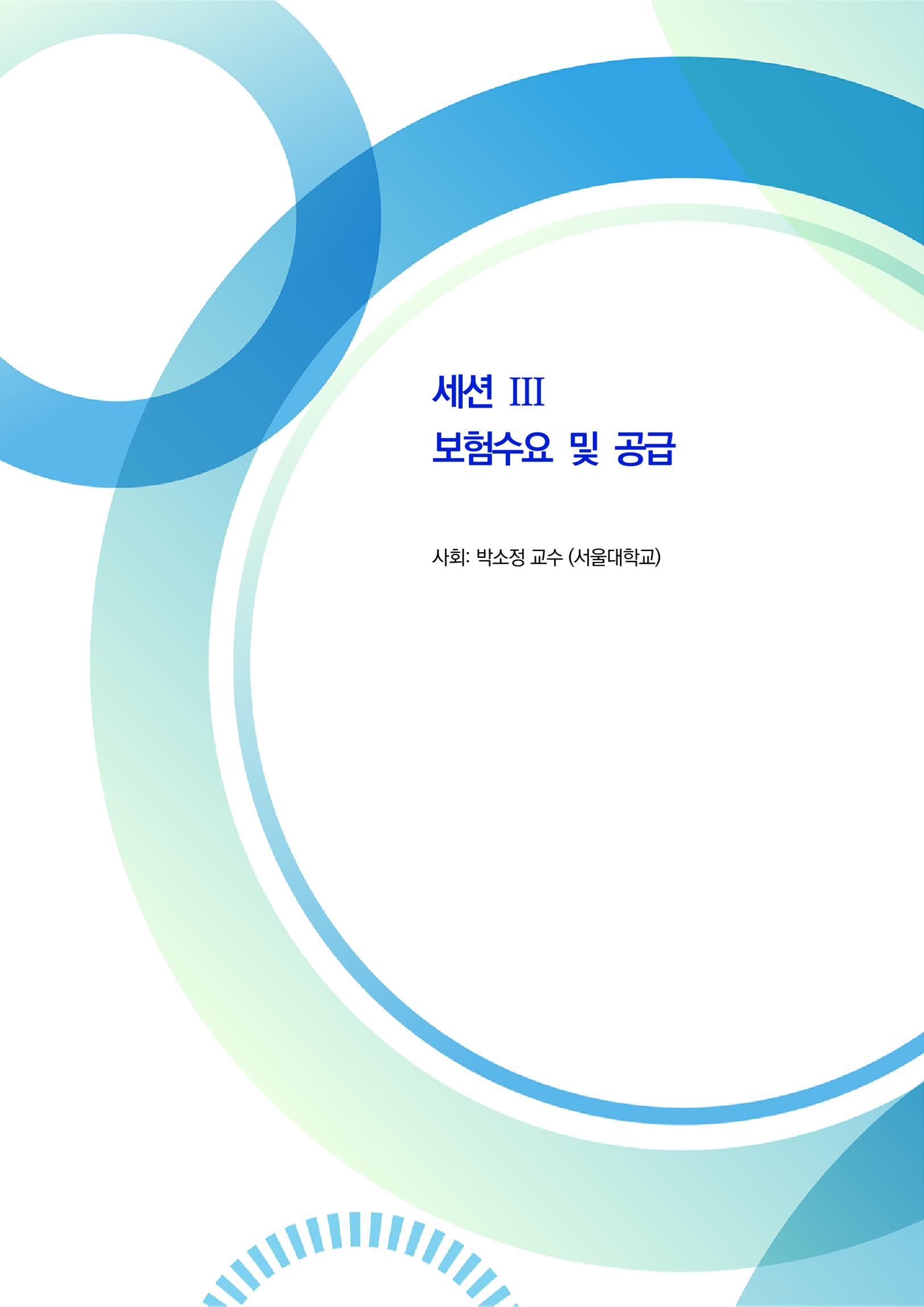
사회: 마승렬 박사 (손사경영연구소)

발표자	성명	최경진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의향 분석 및 시사점
	영문	Analysis of the intention to conversion to the trust-type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and their implications
공동연구	전희주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2021년 6월 출범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과 자녀 관련 요인이 신탁방식 전환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수 가 적거나 자녀 의견이 긍정적일 수록 주택연금 가입 이후 추가 노후소득 마련이 필요한 집단의 신탁방식 전환의향은 높았다. 결론적으로 신탁방식 주택 연금을 통한 추가소득 마련의 장점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인식, 자녀의 부정적 의견이 신탁방식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을 위한 인프라 개선, 가입자 및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개선 및 연계상품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마승렬
	소속	손사경영연구소
논문제목	한글	주택연금의 수익비 및 기대수익률 분석
	영문	Evaluating Money's Worth and Expected Rate of Return in Housing Pension Program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주택연금 공급자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익관련 비교지표를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연금과 다른 연금상품과의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참고로 활용할 자료가 없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수익관련 비교지표로서 수익비와 기대수익률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수익비 값은 초기에는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0보다 더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연령별로 기대여명 시점에서 평가되는 수익비의 값은 모두 1.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대수익률은 초기 매우 큰 음(-)의 값을 보여 주다가 이후 양(+의 값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그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률인 주택연금 가입자의 임차수익률을 평가하여 그 크기도 함께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주택연금의 기대수익률(또는 수익비)을 다른 연금상품의 수익률(또는 수익비)과 비교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핵심단어: 주택연금, 비교지표, 임대료, 수익비, 기대수익률</p>	
Memo		

발표자	성명	전희주
	소속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논문제목	한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아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영문	A Study on Differentiation of Dental Insurance Rates Using Health Insurance Big Data: Focusing on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공동연구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코호트2.0 DB를 이용하여 기준년도(2007년) 이전의 사전 관찰기간에 1년 이내의 치아우식증과 1년 또는 5년 이내의 치주질환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병자A, 무병자A, 유병자B, 무병자B의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연령별 발생경과 기간에 따라 충전치아우식치료, 충전치주질환치료, 보철치아우식치료, 보철치주질환치료 발생건수가 차이가 있는지는 음이향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상대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적용한 음이향회귀모형을 적합한 결과, 충전 치아우식치료에서만 성별이 유의하지 않고 사전 관찰집단과 연령만이 유의하였으며, 충전치주질환치료, 보철치아우식치료, 보철치주질환치료 발생건수에는 사전 관찰집단, 연령, 성별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명이 되었다. 사전 관찰집단 4집단만을 보면, 보철치주질환치료에서는, 유병자A가 유병자B보다 치료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다른 모든 치료에는 유병자B, 유병자A, 무병자B 순이고, 무병자A가 가장 적은 치료 발생건수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치과의 구강치료 발생은 주로 55세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45세 미만에서는 상대적으로 치과의 구강치료 발생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발생건수 데이터를 가지고 유병자 A대비 유병자 B의 상대위험도를 구해 보면, 충전 치아우식치료, 충전 치주질환, 보철 치아우식치료, 보철 치주질환 치료 모두 거의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치료조건을 더 낮은 유병자 B가 치료조건이 더 엄격한 유병자A보다 상대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	
Memo		

발표자	성명	유주선
	소속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법학전공
논문제목	한글	합리적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sonable damage assessment system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손해사정사제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자 사이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p> <p>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시 사고의 조사와 손해액 평가뿐만 아니라 결정 및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 <p>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박용진 의원, 이학용 의원, 전재수 의원 등의 세 입법안은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손해사정비용의 부담 문제와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p>	
Memo	지정정책과제	



세션 III 보험수요 및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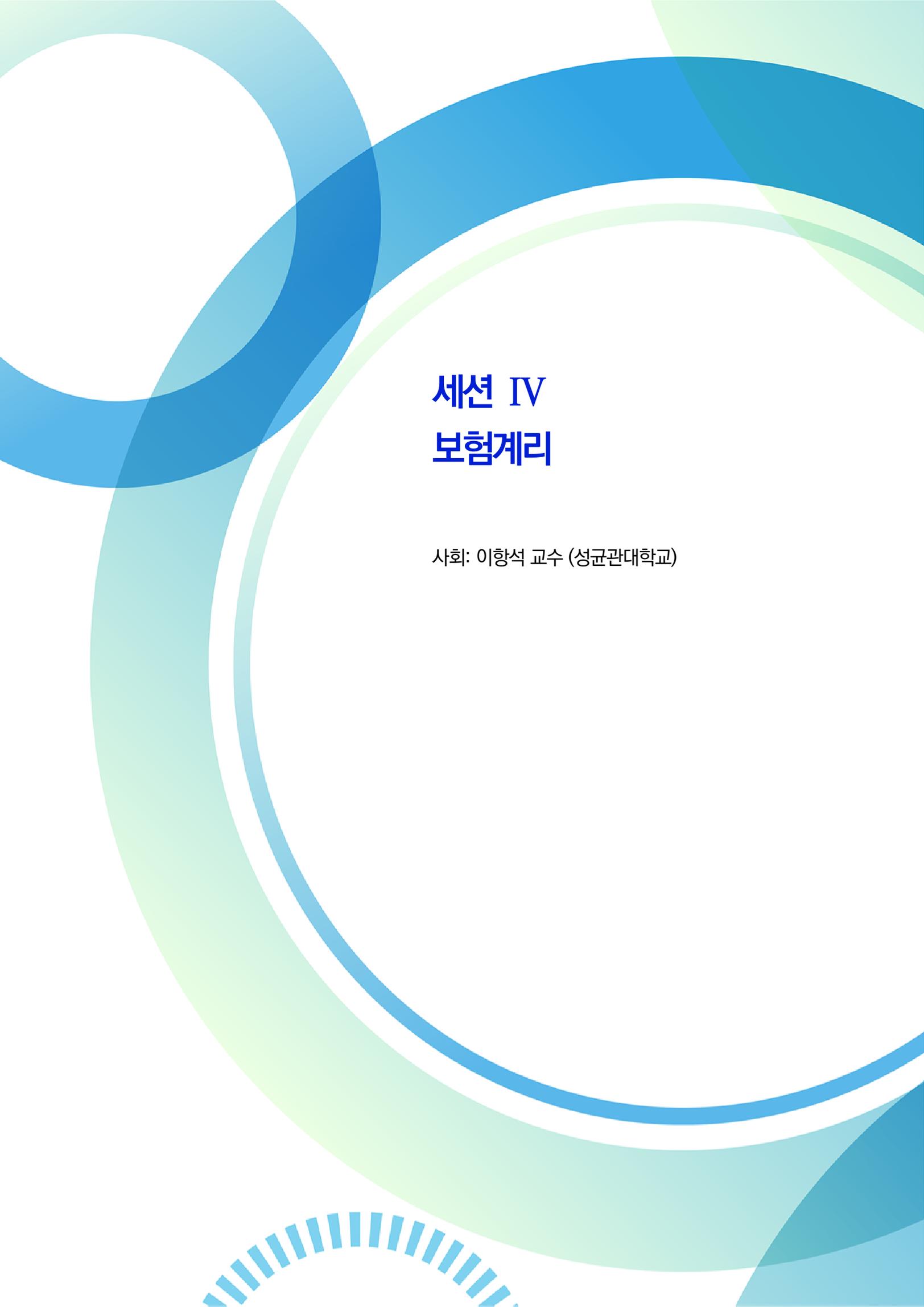
사회: 박소정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자	성명	김경선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제품의 수직차별화와 기업보험 수요 모델
	영문	Product Differentiation and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in a Duopoly Model
공동연구	홍지민(숭실대학교), 석승훈(서울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This study develops a duopoly model with quality and price competition, and investigates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Our model predicts asymmetric strategic effects of insurance for two firms with different qualities, because the increases in the quality of each firm have opposite effects on the intensity of price competition. We show that low-quality firm has positive strategic effect of insurance, and might purchase insurance, whereas high-quality firm has negative strategic effect of insurance and never purchases insurance if firms are risk-neutral. When firms are risk-averse, however, high-quality firm might also purchase insurance if the cost of risk is sufficiently large, so that the benefit of insurance exceeds the sum of the strategic effect and the cost of insurance. We show that the availability of insurance might raise the quality levels of both firms.</p>	
Memo		

발표자	성명	박소정
	소속	서울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금융이해력, 거주지와 개인연금수요의 관계
	영문	Financial Literacy, Region, and the Demand for Private Pension
공동연구	박소정, 손준호(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이 연구에서는 제13차 재정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개념에 관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평가하고, 금융이해력과 거주지가 보장성 보험 및 개인연금에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p> <p>31%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 개념인 이자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이해력은 교육수준이나 성별, 직업, 소득수준, 순자산 등과 같은 인구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금융행동(financial behaviour)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은 전체 설문 대상자의 12%만이 가입한 개인연금 가입에는 영향을 미치나, 86%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나 교육수준, 금융이해력 등을 통제한 후에도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금융이해력뿐 아니라 거주지의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금융역량(financial capacity)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여겨진다.</p>	
Memo		

발표자	성명	남혜정
	소속	동국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보험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영문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신상품을 판매할 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이 특허권처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회사의 성과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타적사용권이 있는 기업들은 사업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타적사용권을 가진 보험회사일수록 보험영업에 적극적이며,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장여부에 따라 배타적사용권과 기업성과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상장보험회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이는 비상장보험회사에 배타적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p>	
Memo	선도연구과제지원	

발표자	성명	이지이
	소속	목포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학통합과정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3대 질병보험의 언더라이팅이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Effect of Underwriting Role of Disease Insurance on Insurance Purchase and Insurance Payment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3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진단 담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언더라이팅의 특성을 분석하고, 언더라이팅 절차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9년 기준 245,865,831건수이다. 이러한 자료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 연령, 지역, 상해등급, 가입금액별로 보험계약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약과정(담보구분(표준체와 유병체), 모집형태(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모집방법(대면과 비대면))과 진단과정으로 구분된 언더라이팅이 보험계약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3대질병보험의 계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모집방법(대면 모집)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언더라이팅과정에서 모집방법과 진단여부가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경과년도도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p> <p>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용한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 필요 및 향후 판매 상품개발에 있어 모집방법 및 모집형태 등을 고려한 유용한 전략 도출 그리고 감독당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Memo		



세션 IV 보험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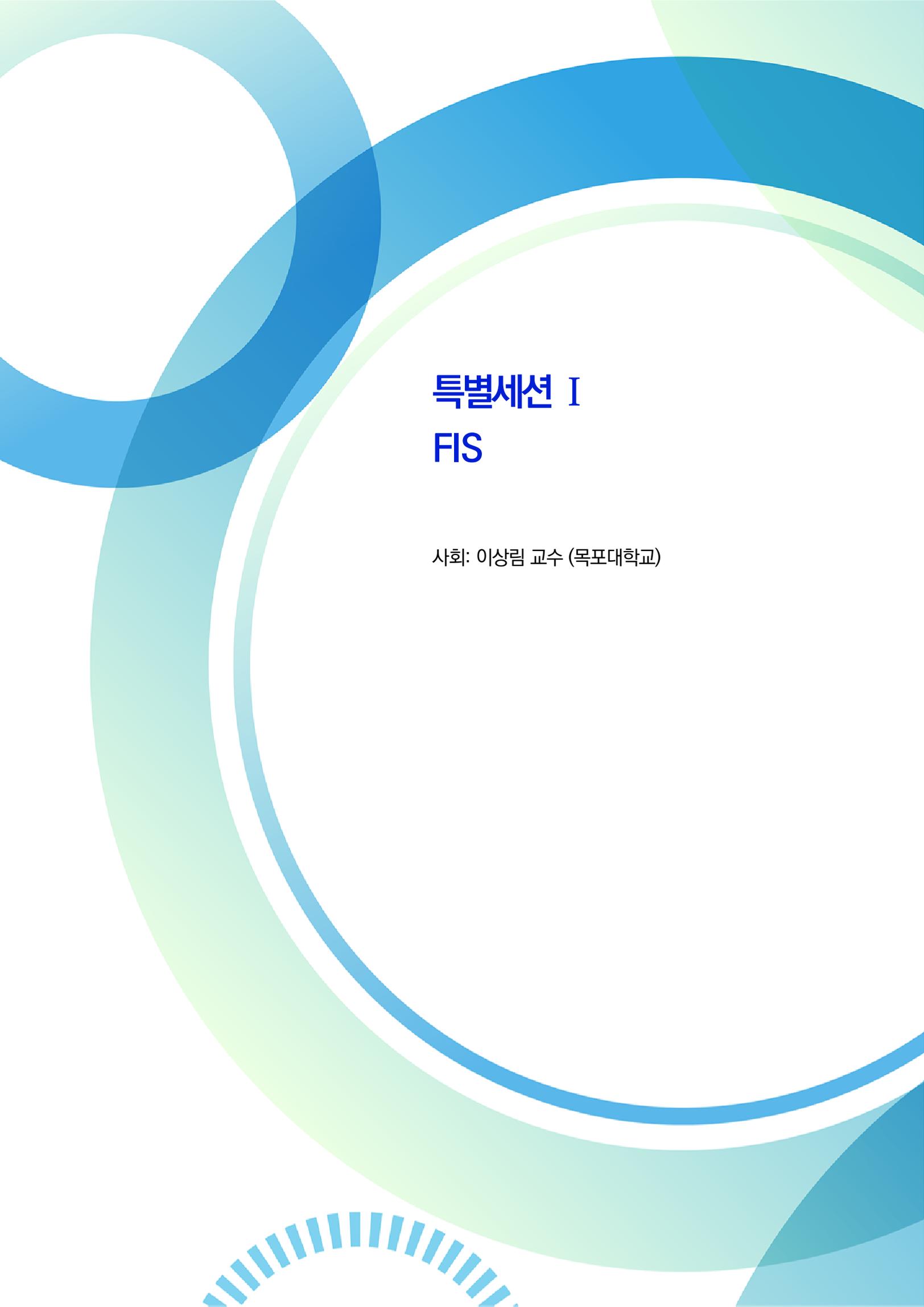
사회: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자	성명	김선애
	소속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논문제목	한글	고령화와 공적연금 균형보험요율
	영문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손지훈(조세재정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급비가 높은 구조로 인하여 국민 연금의 현 제도에서 장래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재정계산보고서 및 인구전망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현황과 미래의 연금 재정수지차, 연금 적립금, 부양비 및 필요보험료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Gertler (1999)와 이를 개선한 Lee, Ryu and Son (2021)의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모형의 모수를 결정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 결과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확률 (근로기간)와 은퇴자의 생존율 (고령화) 등을 통해 연금의 균형보험료율, 세율, GDP 대비 자본비, 소비 및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외생 변수의 변화(근로 기간의 연장, 고령화 등) 로 인한 정책 변화의 효과(연금의 균형보험료율, 세율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민하
	소속	성균관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영문	Piecewise linear boundary crossing probabilities, Barrier options, and Variable annuities
공동연구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하홍준 (Saint Joseph's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배리어 옵션은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간별 선형 배리어 옵션을 소개하고 해당 옵션의 가격 공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간별 선형 배리어에 대한 이론적 도달 확률을 도출하고 임의의 배리어에 대한 도달 확률을 근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조기 행사가 가능한 금융 상품은 녹아웃 배리어 옵션과 리베이트 옵션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 조기 행사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품 분해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 적립 혜택이 보장된 (GMAB) 변액 연금 상품과 조기 행사 옵션을 다룰 것이다. 또한, 이론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수치 예제를 제공할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창기
	소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논문제목	한글	IFRS 17과 IFRS 4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 및 보험손익 비교 분석
	영문	
공동연구	김창연 (KB손해보험)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신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IFRS 17 회계기준은 원칙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보험 업계는 IFRS 17 기준의 보험부채와 손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확한 영향도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부채와 보험손익을 평가하고, 산출된 보험손익을 토대로 IFRS 17 기준과 IFRS 4 보험회계 기준의 차이점과 재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승준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태풍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구역별 손실예측모형: 기후변화 영향과 기계 학습 응용
	영문	Spatial loss prediction approach using tropical cyclone data: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application with machine learning
공동연구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감중훈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험이 증가하는 한반도 태풍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먼저, 태풍의 경로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기계학습 모델인 k-means 및 DBSCAN을 활용하여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태풍의 물리적 위태(hazard)를 지역별로 세분화한다. 그다음, 태풍, 지리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기계학습 모델(support vector regressor, random forest, XGBoost)을 통해 지역별(시, 군, 구 단위) 경제적 손실액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계학습 기반 모델은 전통적 통계모형(다중선형회귀)과 비교하여 시험 데이터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가 25%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일부 지리 및 사회경제적 요인(소득수준, 제방면적)이 손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행정구역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태풍 위험지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100년 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태풍 위험을 예측한 결과, 경제적 손실은 최대 8.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보험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손실액을 예측하는 단계적 방법론을 제안하면서,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기술적 모델링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p>	
Memo	선도과제지원	



특별세션 I

F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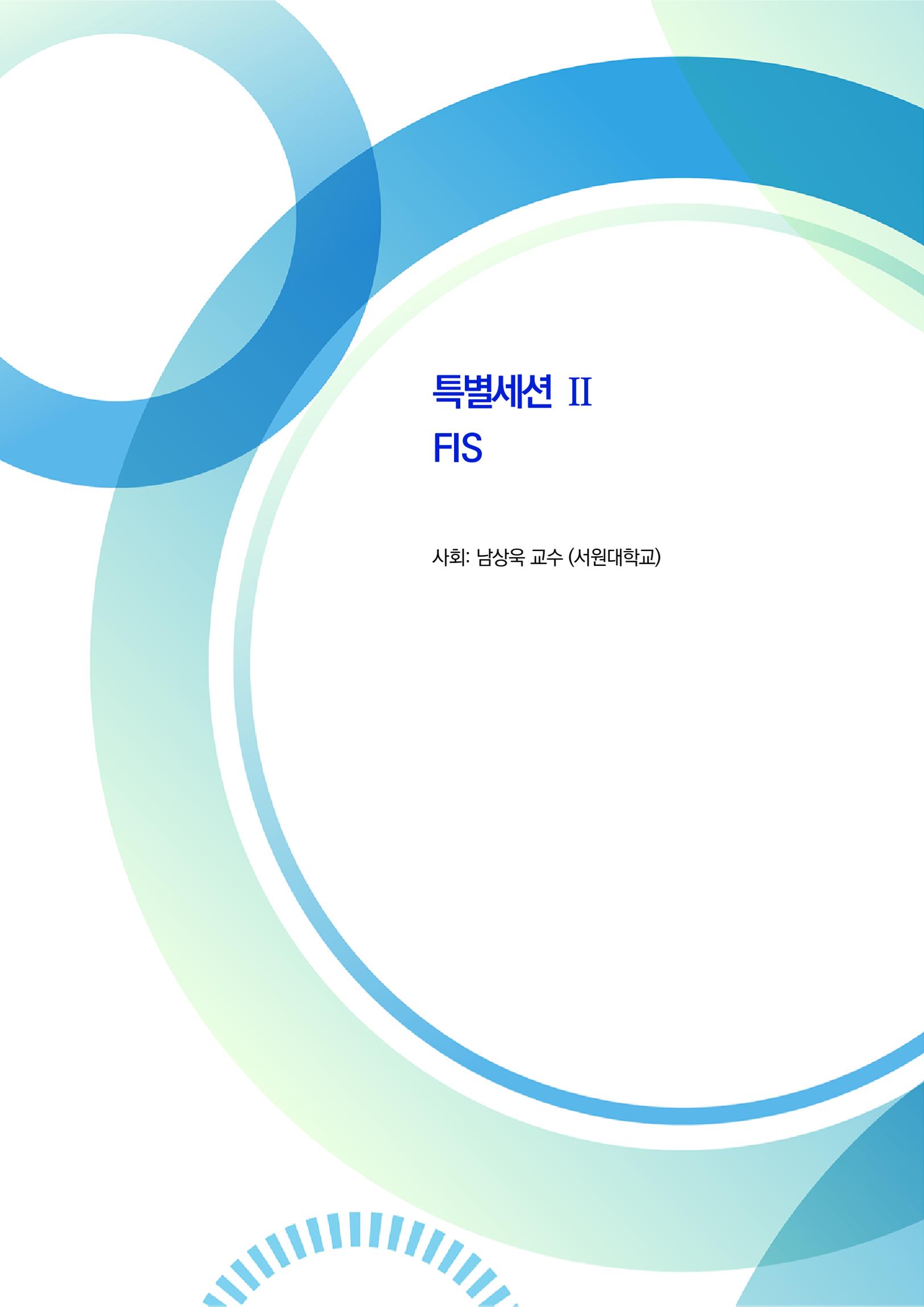
사회: 이상림 교수 (목포대학교)

발표자	성명	조재훈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논문제목	한글	데이터 유출 위협의 공간적 상관성 분석 연구: 미국 사례 중심으로
	영문	Spatial Analysis for Data Breach Loss Events in U.S.
공동연구	오유정·노동준(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데이터 유출 사건 간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 관한 자료(Privacy Rights Clearinghouse)와 자치주(county) 단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전역적/국지적 Moran's I 수(Moran's I Statistics)를 통해 데이터 유출 사건 빈도에서 자치주 단위의 공간적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간 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및 공간 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빈도의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인구와 평균 소득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결과는 인구가 많거나 부유한 자치주에 인접한 지역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공간적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캘리포니아, 뉴욕)과 핵심 데이터 유출 리스크인 해킹 유형의 발생빈도에 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공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사이버 리스크 보험의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Memo	FIS 연구지원	

발표자	성명	김보경
	소속	동아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에 관한 연구 : 운동을 중심으로
	영문	A Study about Healthcare Services by Insurance Companies
공동연구	정창연(동아대), 성미언(동아대)	
논문초록 (Abstract)	<p>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은 사후적 치료에서 사전적 관리(예방)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이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진출 필요성과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운동을 하는 사람, 특히 걷기 운동은 향후 의료비와 만성질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 기능을 가미할 경우,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험회사는 동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 한다.</p>	
Memo	FIS 지원과제 발표	

발표자	성명	양원혁
	소속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학전공)
논문제목	한글	기후변화 리스크와 일상생활에 관계
	영문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risk and daily life
공동연구	정택민, 이시우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학전공))	
논문초록 (Abstract)	<p>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최근의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처방식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 · 산업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p> <p>우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 생활적 면에서 정체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 2021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출현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후변화였다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 보도가 있었고, 근 10년을 기준으로 국내 외적으로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남 · 북극 내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몇 몇 개의 섬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 뒤에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 인천 등의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p>	
Memo	FIS지원과제	

발표자	성명	김석호
	소속	동서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MZ세대를 위한 보험마케팅 방안
	영문	
공동연구	서진혁, 오성진 (동서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MZ세대가 보험가입 및 납부를 직접 처리하는 소비자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MZ세대는 가치관을 소비행위를 통해 표출하며 더 많은 돈을 지불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념에 따른 소신 있는 소비를 지향한다.</p> <p>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보험 업체와 친환경적인 재활용 제품 생산 업체의 합작인 업사이클링 보험을 생각해 보았다.</p> <p>또한 MZ세대는 보험 관련 교육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하여 대중적인 인물들로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영상 내용에는 기본 보험지식, 보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보험 사례 등을 넣는 것이다.</p> <p>최종적으로 MZ세대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Memo	FIS지원과제	



특별세션 II

FIS

사회: 남상욱 교수 (서원대학교)

발표자	성명	박건우
	소속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ESG 활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례를 중심으로
	영문	A study on the impact of esg management activities on insurance companies
공동연구	오병준, 박건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본 논문은 ESG활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계획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보험회사의 다양한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ESG 관련으로 발표되는 기업평가 결과자료는 전세계 ESG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은 보험회사의 ESG 경영과 보험회사의 신뢰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에 ESG 경영이 지속 가능한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사례를 통해 나타났다.</p>	
Memo	FIS지원과제	

발표자	성명	김성찬
	소속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드론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how to activate the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system related to drones.
공동연구	손승명, 조진석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인항공기인 일명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드론 산업은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활용 활성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 신체, 재산 피해,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위험 요인들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위험 및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하여 현재 시행중인 드론등록제의 연장선상에서 국영보험으로서의 배상책임보험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드론이 가지는 제도적 및 운용과 관련한 특수성은 민간에서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 드론보험을 국영보험으로서 우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드론보험과 관련한 제도적 · 운영적 틀을 국가가 제공하고, 향후 보험회사들이 드론과 관련한 전문성이 제고되었을 경우 단계적으로 사보험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드론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p>	
Memo	FIS 지원 과제 발표	

발표자	성명	고재현
	소속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통합과정
논문제목	한글	비용-편익 관점에서 본 실손 의료보험 유지 행태 분석
	영문	Analysis of the maintenance behavior of indemnity health insurance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공동연구	왕재형, 정승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통합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은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넘어가야 손해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존세대 보험을 유지할지, 해약할지, 새로운 보험으로 옮겨갈지를 정하는 주체는 소비자이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실손보험 손해의 부담을 전가 받고 있다. 그러므로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패널 2013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편익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 유지 및 해약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년 동안 보험금을 전혀 수령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험금을 수령받은 집단이 실손의료보험을 해약할 확률이 적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충분한 공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공적 보장을 보완하도록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고 충분한 의료비 보장이라는 실손보험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p>	
Memo	FIS지원과제	

발표자	성명	송재관
	소속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논문제목	한글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상품 구매의사 결정요인 분석연구
	영문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utonomous Vehicles Insurance Products by Mobility Innovation
공동연구	송두섭, 채희주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지도교수: 김헌수, 박윤철)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보험 체계는 과실책임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고 억제와 피해자 구제에 있어 보상의 공정성과 신속성 및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p> <p>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기계간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로써 현행 과실책임제도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p> <p>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주장되고 있어 기존의 보험체계인 과실책임제도와 비교, 조사하여 각 소비자의 보험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해 보험상품 설계 방향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p>	
Memo	FIS 지원과제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4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으로(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보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다른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르며, 편집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1.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⑥ 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연구윤리 준수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④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될 때, 편집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2.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제4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의 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학회사무국에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종류로는 다음이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 ③ 관련 기록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10조(사후관리대책)

-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도에 4월말 발간되는 『보험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

